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러시아 책임론 고조

서방국, “러, 미사일 제공 정황 드러나” 공세 강화

친러 반군 “냉동칸 보관 시신·블랙박스 인계할 것”

시신 247구 수습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추락 사건 발생 나흘째인 20일(현지시간) 사고현장 수습 작업이 활기를 띤 가운데 반군에 미사일을 제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공세가 강화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날 전체 탑승자 298명 가운데 247명의 시신이 수거됐으나 반군이 통제하는 시설로 옮겨져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반군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하면 사고조사단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조사는 여전히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희생자의 시신 수습과 블랙박스 회수를 돕겠다고 약속해 사고 수습작업이 활기를 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반군 지도자 알렉산드르 보르다이는 이와 관련 “희생자 시신은 현장에서 15km 떨어진 토레즈 마을의 냉동 객차 시설에 보관 중이며 국제조사단의 전문가가 도착하는 대로 인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회수한 사고기의 블랙박스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현장에는 말레이시아 합동조사단 131명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조사단원 30명이 도착했지만, 현장 조사는 본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는 지금까지 약 200명의 대원들을 투입해 추락 지점 인근

32km² 지역을 수색했으며 수색반경을 2km 더 늘렸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이 조사단의 손을 떠나 옮겨지면서 반군이 피해자 유품과 증거들을 빼돌리거나 없애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친정부 성향의 콘스탄틴 바토츠키 도네츠크 주 자치의회 의장은 “반군이 희생자의 유류품을 훔치고 현장에서 불리한 증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시신과 유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정말 역겹고 수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여객기 격추에 사용된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반군에 넘겨 준 정황이 드러나 러시아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됐다.

서방국들은 여객기 격추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 소행임을 일찌기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증거들이 매우 분명하게 반군의 소행

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상은 이날 전화 회의를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국제조사단의 사고현장 접근 보장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오는 22일 EU 외무장관회의 이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잔학행위의 책임자 색출과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EU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관계 설정의 방향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자세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피해 사망자 수 추이

20일, 누적 사망자 수 435명* (팔레스타인 사망 417명, 이스라엘 사망 18명)



*현지시간 기준, 집계 기관(유엔, 팔레스타인 보건부 등) 및 시간에 따라 차이 있음

팔레스타인 ‘피의 일요일’

이스라엘군 폭격 100명 사망...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20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최소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

가자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인명 피해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로써 지난 8일 이후 이날까지 13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어린이 112명, 부녀자 41명, 노인 25명 등 43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어린이 500명을 포함해 적어도 30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 시티 인근 세자야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이 지역에서만 팔레스타인 주민 62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교전 과정에서 자국 군인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래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2006년 레바논 전쟁 이래 전투 중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군이 희생된 것이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20명이 됐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조직 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 1명을 생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휴전을 위한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밤(현지시간)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요르단의 요청으로 열린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

美 뉴욕서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뉴욕타임스 앞 인도에서는 40여명이 모여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언론자유보장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Everything was lie’(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등의 글씨가 쓰인 피켓을 들었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또 한글로 된 유가족 일동 명의의 호소문과 영어로 된 박근혜 정부 비판 전단을 행인들에게 나눠줬으며,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이날 시위가 미국의 한인 여성 생활정보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됐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시USA’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 앞에 시위를 하기도 했다.



추모객들 현화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입구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승객들을 추모하기 위한 꽃들이 놓여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이글호 착륙”

NASA 아폴로 11호 달착륙 45주년 기념행사

성조기를 달에 꽂은 그는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나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고요의 바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했을 때 현무암 지대의 편평한 이 지대가 고요한 바다라고 하던 이름으로, 달에는 비의 바다, 구름의 바다, 풍요의 바다 등이 있다.

아스트로 일행이 착륙한 고요의 바다는 훗날 고요의 기지로 명명됐다. 암스트롱과 ‘달 궤도 랑데부’(LOR) 방식으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이끈 우주공학자 존 C. 후볼트가 올해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생존한 두 아폴로 영웅에 드린 버즈 알드린과 마이클 콜린스는 행사에 참석해 그날의 감격을 되새긴다.

LOR은 모선과 달 착륙선을 한꺼번에 우주에 쏘아 올린 뒤 착륙선만 달에 내려 탐사를 하고, 탐사를 마친 우주인들

이 달 궤도에 있던 모선과 도킹해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조명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에서 5억명이 인류의 첫 달 착륙을 TV로 생생하게 지켜봤다. 탐사를 마치고 나흘 후 미국 하와이주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한 세 명의 우주비행사는 영웅으로 평생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우주 비행사들의 신발과 헬멧 제작 소재를 생산해 인류사의 큰 걸음을 옮기는 데 힘을 보탠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임무’라는 이름이 붙은 우주화를 45주년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획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남녀가발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자산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